

요약

보험회사의 ESG 평가는 고유한 사업모형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 리스크 및 기회와 이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성과가 반영되어야 함.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의 경우, 지속가능 경영정보의 부족 등으로 현재는 사업모형을 반영한 지속가능 지표와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앞으로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하여 가용한 지속가능 경영정보가 축적되면 사업모형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세분화된 ESG 평가가 필요함

-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평가하여 그 성과를 시장에 전달하는 과정인 ESG 평가는 기업 고유의 지속가능성 관련 핵심 리스크와 기회를 반영하여야 함
 - ESG 평가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 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통제하고 기회를 활용하면서 얻는 지속가능 경영성과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함
 - ESG 평가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ESG 리스크에 노출된 동종의 기업들 사이에서 어느 기업이 상대적으로 리스크 노출을 잘 관리하면서 사업기회를 살리는 지를 비교하여 평가함
 - ESG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ESG 투자자는 투자 목적에 맞는 기업을 선정하고 이는 다시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통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함
 -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지속가능 리스크와 기회에 노출되는 양태가 달라지고 이에 대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통한 대응 또한 달라지므로 ESG 평가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은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이라는 고유의 사업모형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속가능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노출되며, ESG 평가는 보험회사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기회를 살리는지를 평가해야 함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전환 리스크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으며 위험인수 측면에서도 물리적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주로 자산 관련 리스크에 국한된 은행이나 금융투자업과 차별화됨
 - 특히 보험산업 내에서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영위하는 보험종목에 따라 노출되는 지속가능 관련 리스크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차이점이 보험회사의 ESG 평가에 반영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손해보험은 가계와 기업의 각종 위험을 인수하면서 자연재해와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생명보험에 비하여 크게 나타남

○ 선도적 ESG 평가회사인 MSCI¹⁾는 ESG 평가 시 산업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업별로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별 산업의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함(표 1) 참조)

- 보험, 은행, 금융투자 등 금융산업을 사업모형에 따라서 보다 세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 요소의 핵심지표를 선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함
 - 예를 들어, 보험산업의 경우 생명 및 건강, 재산 및 상해, 재보험, 결합보험과 보험중개 등으로 세분하고 은행과 금융투자 산업도 사업모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분하고 있음
- 환경 관련 지표를 보면 손해보험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지표의 비중이 금융산업 가운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은행과 금융투자의 경우 자금조달 관련 지표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사회 관련 지표를 보면 은행 등 가계성 금융산업에서는 금융접근성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기관투자 사업모형을 가진 금융산업의 경우 책임투자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부여됨

〈표 1〉 MSCI의 주요 금융산업별 핵심지표와 가중치

(단위 : %)

핵심지표	보험					은행			금융투자	
	생명	손해	재보험	결합	중개	은행	지역	모기지	투자	펀드
환경(E)	5.4	17.8	17.0	13.9	5.0	12.9	14.5	6.4	10.2	5.8
기후변화취약성	5.2	17.8	17.0	13.7	5.0	-	-	1.1	-	1.1
탄소배출	0.2	-	-	-	-	-	-	-	1.1	0.8
환경영향 자금조달	-	-	-	0.2	-	12.9	14.5	5.3	9.1	3.9
사회(S)	59.7	48.2	47.0	53.1	53.0	54.0	51.8	60.3	48.9	60.4
인적자원 개발	19.9	19.5	20.5	17.9	24.0	15.1	13.0	14.5	23.3	17.5
사생활보호 자료보안	14.9	14.4	10.6	13.9	17.0	12.1	10.4	13.3	9.7	9.1
책임투자	14.9	13.9	15.9	13.0	-	-	-	0.4	15.9	5.2
금융 접근성	9.9	0.1	-	8.0	-	12.1	12.8	12.6	-	11.9
금융소비자보호	-	0.3	-	0.3	12.0	14.7	15.6	19.5	-	16.7
상품 안전과 품질	0.1	-	-	-	-	-	-	-	-	-
지배구조(G)	34.9	33.9	35.9	33.1	42.0	33.1	33.7	33.3	41.0	33.8
합계	100.0	99.9	99.9	100.1	100.0	100.0	100.0	-	101.1	100.0

주: 2023. 7. 13 현재 가중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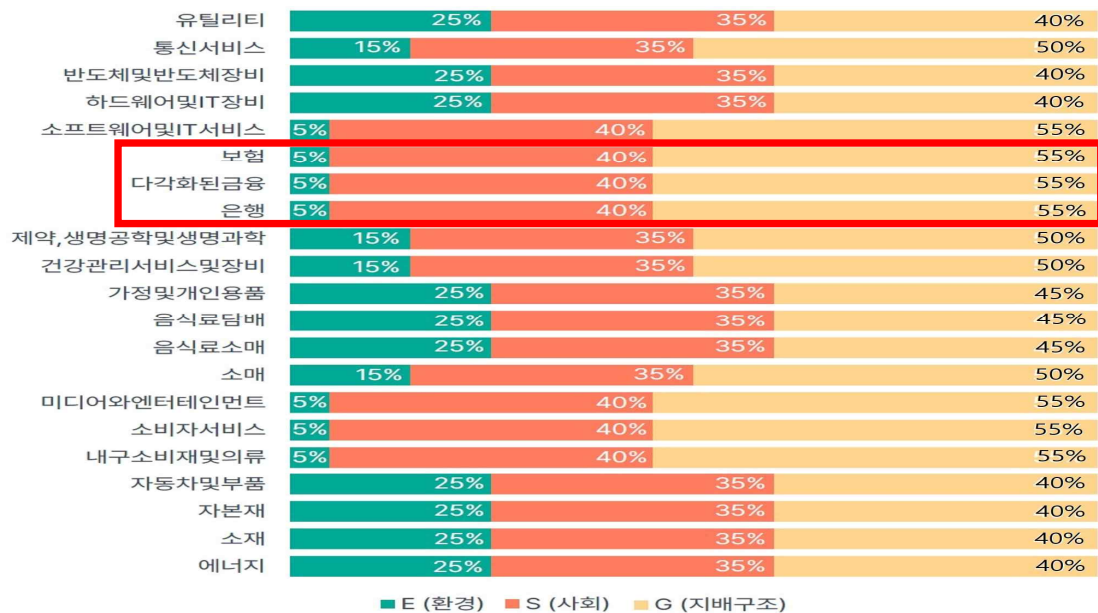
자료: MSCI(2023), MSCI ESG Ratings

1) 전 세계 150여 개 ESG 평가와 데이터 관련 회사 중 3대 회사는 MSCI, ISS ESG 그리고 Sustainalytics로 약 60%의 시장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됨(KPMG(2020. 2), "Sustainable Investing: Fast-Forwarding Its Evolution")

○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²⁾의 평가는 ESG 경영 관련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아직은 산업의 세부적인 사업모형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그림 1) 참조)

- 보험, 은행과 다각화된 금융 모두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하여 각각 5%, 40%, 55%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ESG 평가에 세부적인 사업모형이 반영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각 금융산업별로 사업모형에 따라 차별화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우리나라의 ESG 평가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가중치가 모든 산업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 우리나라 ESG 평가회사의 산업별 ESG 가중치 예시



자료: 서스틴베스트(2021), 「기업 ESG 분석보고서」

○ 앞으로 지속가능 공시 등을 통하여 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 경영정보의 축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과 기업의 사업모형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된 ESG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ESG 평가에 세부적인 사업모형이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양질의 정보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보험산업의 경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보험회사의 수³⁾가 상대적으로 적고 배출량 공시를 비롯한 세부내용도 회사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지속가능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공시규제의 준비를 예고하였음
- 기후위기의 심화와 함께 환경 요소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업의 배출량이나 금융회사의 환경 관련 자금조달 등이 ESG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므로 이들 지표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시장규율 측면에서 중요함

2) 한국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등을 참조함

3) 2022년도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한 보험회사는 주로 대형사 위주로 생명보험 4개 사와 손해보험 4개 사에 불과함